

발견강

피부건조증 (Xerosis cutis)

▶ 1297호에서 이어집니다.

건조된 피부는 순한 비누의 사용, 목욕물에 오트밀 팩, 그리고 목욕 후 즉시 보습제를 사용함으로써 호전을 볼 수 있고, 과도한 비늘이 발생할 때는 젓산이나 알파하이드록산이 첨가된 보습제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는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피부로부터 수분 손실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노화가 피부건조증의 주요 원인일 때는 완치가 매우 힘듭니다. 수분과 피지의 부족에서 병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증상 완화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수반되고 긁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서 세균감염으로 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참지 못해 장시간 연고제를 사용하면 고질적인 습관성 피부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1. 목욕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자국이 심한 비누나 타월로 때를 미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2.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조금 따뜻한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목욕 후에는 보디 오일과 로션을 충분히 발라 영양과 보습에 유의하고 실내 공기의 습도를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를 계속 문지르거나 긁어서 생기는 상처나 이차적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피부 갈라짐 현상이나 이차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건조증의 경우는 초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강현국·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강현국 Hyun Kang DPM
TEL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치과

아랫니 없을 때 치료 방법

이가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데 아랫니 전체가 빠지고 없다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윗니 전체에 틀니를 낀 사람은 그럭저럭 견뎌 나가지만 아래에 틀니를 낀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통증을 호소한다. 아랫니 잇몸 틀의 형태학적 구조가 전체를 틀니로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까닭이다.

가장 좋은 대안은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이식할 때처럼 인공치근을 심고 거기에 부분 틀니를 한다. 인공치근에 인공치아를 씌우는 임플란트는 실제 치아와 모양, 씹는 힘, 수명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큰 매력에 있다. 하지만 아랫니 전체를 임플란트로 하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인공치근과 틀니를 함께 사용한다면 씹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선 잇몸 틀이 충분히 클 때는 빠진 아랫니 중 앞니 부위에 2개의 인공치근을 심고 여기에 맞게 틀니를 제작한다. 전체 틀니보다는 음식을 씹을 때 틀니가 좀 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역시 틀니는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가 틀니 밑에 들어가면 잇몸에 통증이 느껴진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틀니를 조

정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46개의 인공치근을 심은 뒤 이 인공치근들을 연결하는 금속의 봉을 제작해 인공치근에 고정된 다음 틀니의 안쪽 면에 클립이라는 유지장치를 부착해 그 금속봉과 클립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틀니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인공치근 2개를 심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틀니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틀니는 언제나 빼서 닦을 수도 있다. 5~6개 또는 그보다 많은 개수의 인공치근을 심고 틀니를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다. 틀니가 잇몸에 닿지 않기 때문에 틀니로 인한 잇몸 손상이 전혀 없고, 틀니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틀니가 나사로 고정되기 때문에 틀니 검사는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해야 한다. 한 가지 단점은 틀니 밑 부분의 청결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다.

남태준 종합치과
남태준 원장
TEL (714) 871-4962



건강

비타민 알고 먹읍시다 천연 항생, 항암제 골든셀 뿌리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하기보다 대체 요법으로 약초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항생제 남용으로 초래되는 면역력 약화의 문제, 그리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많은 지식인들의 눈을 천연 치료법으로 돌리게 하였다.

골든셀은 전 약초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치료제 중의 하나이다. 거의 모든 질환이나 염증이 좋으며, 특히 소화기관에 관련된 질병에 효과가 높다. 이 약초는 위장에 관련된 모든 질병과 모든 감염과 염증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직접 혈류로 들어가 간 기능 조절을 돕고 정상화시킨다. 또 인체 내 감염을 정지시키며 독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 천연 항생제로 불리고 있다. 감기 치료제로도 아주 좋으며, 코, 기관지, 장, 위장, 방광 등 모든 점막질환에 신속한 치유를 가져다 준다. 다른 약초와 같이 사용할 때, 무순 질병을 치료하든지 간에 강장제의 효능을 증진시킨다. 하제, 암, 종양, 폐양, 의욕 부진,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질병에 쓰이고 약초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즐겨 쓰이고 있다 (*임산부는 복용해서는 안 된다).

■ 골든셀의 효능

1. 골든셀 차와 함께 복용하면 심장 장애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
2.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소화불량, 편도선이 부었을 때와 입안이 헐었을 때 골든셀을 복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3. 디프테리아, 편도선염, 기타 각종 중증

목 질환 발생 시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

4. 만성 카타르성 장염 및 기타 모든 카타르성 질환시에 효과가 있다.
5. 치조농루증이나 잇몸이 헐었을 때 컵에다 소량의 골든셀 차를 담아 칫솔에 적셔서 치아와 잇몸을 철저히 닦아내면 놀랍게 효과가 있다.
6. 코가 막히든지 코의 점막이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의 비후 장애시에 소량의 양을 물에 녹여서 손 바닥을 무독하게 해서 코를 대고 코로 들여 마셨다가 서서히 내뱉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7. 장 및 방광질환에 골든셀을 복용하면 특효가 있다.
8. 하제로서, 치핵, 치질, 전립선 이상증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9. 방광, 간, 췌장, 비장 및 신장 질환에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골든셀은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약초와 병합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골든셀만을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는 1차수저의 골든셀을 물 1컵에 타서 식후에 하루 2~3회 복용하면 된다. 또는 1티스푼의 가루를 입에 넣고 물을 마셔도 된다. 시중에는 골든셀이 함유된 여러 가지 약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그 함유량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효과를 못 보는 실정이며 값도 비싸다.

◆ 비타민 전문점: (714) 534-4938

가정의학

전립선비대증 (BPH) 치료(Treatment) 5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에 가장 먼저 사용된 전문약이 알파1-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이것은 전립선을 지나는 요도 주위의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서, 커진 전립선에 의해 증가된 요도내의 압력을 줄여서 배뇨를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열의 약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라조신(prazosin, MINIPRE-SS® 이하 대문자는 상품명), 테라조신(terazosin, HYTRIN®), 독사조신(doxazosin, CARDURA®), 알푸조신(alfuzosin, UROXATRAL®), 탐솔로신(tamsulosin, FLOMAX®) 등이 있는데, 프라조신은 원래 혈관 확장을 시키는 항고혈압제로 사용되었다가 다른 알파1 수용체 차단제에 비해 기립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 갑자기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는 것이 훨씬 자주 발생해서, 최근에는 전립선비대증 치료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라조신도 원래는 혈압강하제로 개발되었지만 전립선비대증 증상의 개

선 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독사조신도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저용량으로 투약을 시작하여 점차 늘려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약인데, 혈중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방형 약이 개발되어서 부작용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알푸조신은 혈액내보다 전립선 안에서 더 고농도로 분포하므로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탐솔로신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파1 수용체 차단제이며, 요도괄약근에 좀 더 특이적으로 작용하므로 기립성 저혈압이 적은 것이 특징이어서, 알파1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어지러움증이 심하면 이 약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지 효과가 다른 약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호에도 계속해서 전립선비대증의 각 약물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목 가정의학비뇨기과
원장 오문목 의학박사
TEL (949) 552-8217

